

# 아빠, 담뱃불 좀 꺼주세요!

우리 누나와  
사귀고 있는  
아저씨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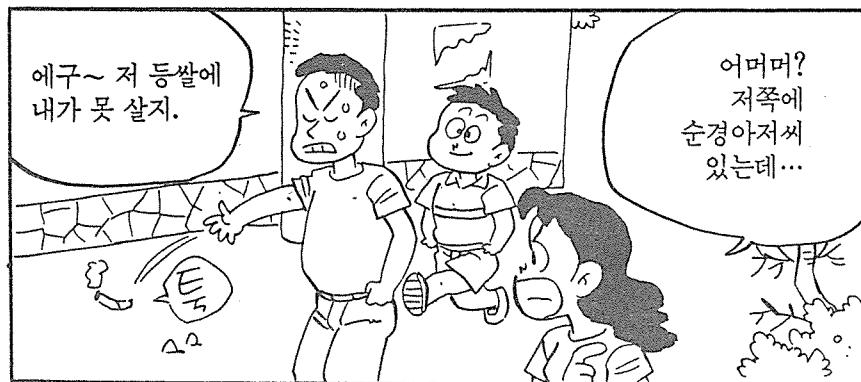
나한테 농구공도 사주고  
놀이동산에도  
데려가 주는

야호  
덩크슛...



좋은 아저씨입니다.  
오늘도 피자집에  
가자고 해서 함께  
따라 나왔습니다.





그러던 어느날, 그 아저씨가  
병원에 입원했다는  
연락이 왔습니다.



아니 그렇게  
건강하던  
청년이 왜...

흑흑...

글쎄,  
그 좋지도 않은  
담배를 죽어라고  
피워대더니...

그럼  
담배 때문이야?

흑시...  
폐암 아닌?

폐암이  
아니라  
기관지가...

후유~  
난 또...

